

자료제공: 2023. 7. 14.(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2133-2260
버스정책팀장	진선영	2133-2262
담당자	한복근	2133-2268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쪽

서울시 전장연 측 버스전용차로 기습시위에 '강력대응'

- 전장연, 7.12.(수), 7.13.(목), 7.14.(금) 버스전용차로 기습 점거, 불법시위
- 서울시, 14일 관할 경찰서에 불법 행위 형사 고발...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
- 기습점거 발생 시 일반차로 우회 등 운행 매뉴얼 마련, 65개 운수회사 및 조합 즉시 시행
- 운행 지연 관련 형사고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동원 가능한 법적 조치 실시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수), 13일(목)에 이어 14일(금)까지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에 집회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감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전장연은 7월 12일(수)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적으로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목) 08시에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14일(금) 08시에도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하여 출근길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 서울시는 우선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기습 점거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즉각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점거시위 확인 즉시, 일반차로로 우회 운행토록 하고 즉시 운수회사와 서울시에 정보를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미 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하차시킨 후에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하여 후행 버스나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강력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서울시는 7.14.(금)에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전장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으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